우표와 씰 수집은 돈이 되는가?

글 · 허종화(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컬렉션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첫 번째 고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모을까?' 하는 것이다. 혼자서도 쉽게 시작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 오래도록 즐기며 어린 학생 때 시작하여 청년, 장년과 노후까지 가능하고, 국제 교류와 내용(contents)이나 실속 면에서 국내외에 통용되는 가치 인정이 가능한, 즉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을 생각하면 단연 우표와 씰을 꼽을 수 있겠다.

우리는 가끔 보도를 통해서 지갑 속에 간단히 넣을 수 있는 우표나, 사용된 편지봉투, 엽서 한 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혹자들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문화나 예술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으며 계획됐던 대규모 공연이나 미술 전시회가 축소 내지 취소되는가 하면, 부동산의 끝 모르는 추락 속에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 부도와 실업 증가의 공포 속에서 문화니 취미니 컬렉션이니 하는 소리가 될 법이나 하는 소리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장 큰 위기, 세계적인 위기일수록 위험도 더 크지만 기회는 더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보도에 의하면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회사 핌코의 CEO인 빌 그로스는 2000년 200만 달러에 사들였던 영국의 초기 우표들을 2007년 6월의 경매에서 910만 달러에 팔아서 투자비용 대비 4배의 수익을 올렸다며 주식투자보다 우표투자가 훨씬 수익이 높았다고 자랑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우표와 씰로 이런 성공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우표 수집가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99.9%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필자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해마다 발행되는 한국 우표 도감에 나타난 우표와 씰 가격을 보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요즘 우표 도감 가격의 30-40%에도 팔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0년 이상 된 우표의 전지(全紙)들이 액면가 이하로 경매에 나오기도 하는데, 불경기와 금융 위기까지 겹친 지금의 형편에서 우표와 씰이 돈이 되겠는가? 투자는 아무도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들이 왜 '돈이 되는가?' 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범한 재테크

우표와 씰의 수집이 투자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99.9%를 뒤집어 보면 0.1%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0.1%를 실천해낸다면 그것은 100% 현실로 입증되는 비범한 재테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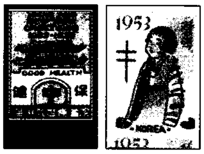
앞서 이야기 한 빌 그로스를 다시 보자. 그는 10대 때부터 용돈으로 우표 수집을 시작했고 그것을 즐기면서 지식을 쌓은 데다, 상당한 자금 능력을 확보한 후 우표 전문 경영인인 찰스 쉬레브(필라텔리 갤러리)의 도움을 받아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실행해서 성공한 것이다. 그는 돈만 번 것이 아니라 세계 5대 우표 수집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유럽이나 미국의 부자들은 온 가족이 우표, 골프, 승마를 함께 하면서 가족애와 교훈을 나누고 이웃과 교제하면서 성장한다. 반면 우리는 대학 가기 위한 시험공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키니 건강과 정서와 교양과 창의성이 부족한, 성적 1등만 추구하다가 대학에 가서는 입시 후유증으로 퍼져버리거나, 졸업을 해도 창의성과 협동성 부족으로 취업이 힘들거나 취업을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벤처 창업은 꿈도 못 꾸니, 이 힘든 세계화 위기를 어떻게 감당해 내겠는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부모에게 골프와 승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수가 있지만, 우표와 씰은 몇 천 원의 용돈으로도 가능하고 이를 통해 얻는 세계적 지식과 교양, 심미안, 우정과 국제 교류의 기회 등이 가능하지 않는가?

미래를 보면 보이는 재테크

독일에는 우표 수집 인구가 400만 명이나 되는데 컴퓨터와 휴대폰 등의 보급으로 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라 하더라도 그 규모와 수준은 엄청난 것이다. 우리나라를 보자. 만약 해방 이후에 발행된 한국 우표를 한 장씩 모두 수집해서 앨범을 만드는 사람이 천 명만 된다면 우표와 씰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 천 매 정도 발행되어 전세계에 흩어진 4-50년대의 증정용 시

트(Sheet)의 희소가치는 어떻게 될까?
또 크리스마스 씰도 생각해 보자. 캐나다 선교사 셔우드 홀 박사가 1932년 처음 발행했던 남대문 도안의 우리나라 최초 크리스마스 씰은 지금 도감 가격이 6만 원이고 그 이후 발행된 것들은 대부분 몇 천원이다. (실제 거래 가격은 훨씬 쌀 것이다.)



정부 수립 후 대한결핵협회가 1953년 처음 발행한 크리스마스 씰은 만 이천 원이며 그 이후 것은 1천-3천 원이다. 우표는 수집가들이 그래도 일찍 손댔고 국제적으로 가격표가 정립되어 있으나, 씰은 아직 시작단계이고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누구나 수집하기가 쉽다. 천 매 이내에 발행된 시트가 시중에 몇 장만 남게 돼 둘 때 값은 10-20% 급락하고 몇 장만 모자라면 금방 급등하는 현실에서, 만약 2천 명의 기본을 제대로 갖춘 수집가가 생기면 그 투자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국민 소득이 2만 불을 넘어 3-5만 불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고, 부자 노인들이 수명이 늘어 계속 수집을 즐기는 초고령화 시대가 눈앞에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이는 사람은 우표와 씰 수집의 재테크가 보일 것이다. 기존의 수집가들은 큰손이나 재력 있는 새로운 수집가가 늘어서 우표 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잠재력과 우표 수집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외국의 펀드가 나타나서 일시에 매점매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이 기회!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지금 한국의 경제 사정은 내리막길에 있고 기존의 수집가의 대부분은 70세가 넘어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하고, 재력 있는 사람들도 기업 자금 사정으로 수집품을 싸게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수집에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너무 엉뚱한 나만의 상상일까?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난 투자자의 허무한 결과와 수천억 원을 날린 국보(國寶) 유출보다 투자의 정석대로 가치 투자, 분산 투자, 블루오션, 국부 창출, 이웃돕기, 즐거운 노후보장의 첩경인 우표와 씰의 수집과 투자를 즐겨 보시기를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